

무 판 데기 덮개에 음식을 차린다.

음식을 명절에는 성주에 먼저 차리나 제사 때는 나중에 차린다.

사치도 섬 제보자들은 성주 동우를 집안에서 중요하게 여겨 깨끗이 하며, 함부로 열어 보거나 손을 대지 않고, 있다.

특히 산고(産苦) 때는 추하다 하

여 함부로 손을 대지 않는다.

혹 집안에 큰곳이 열리면 성주에도 치나 특별히 점복(占卜)을 행하지 않는다.

이러한 성주 동우에 대해 “옛날부터 할매들이 놔둔 것이니께 안버리고 두고 있긴 현디 담어 놓지 않고 있다”고 얘기했다.

향토 문화

내 고향 인물(人物)

編輯者

■ 八禽 長村마을 月村 崔良鎬

팔금면(八禽面)에서는 월촌(月村) 선생을 표현하기를 궁춘여량(窮春與糧), 빈학육영(貧學育英) 한 사람으로 목민불망(牧民不忘)한다고 표현한다. 즉, 선생은 춘궁기에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주고, 가난한 학생들에게는 학비를 주어 진학을 시켜 준 사람으로 그래서 은인인

선생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선생은 부모에게 지극히 효자였으며, 지역의 유지이기도 했다.

당시 무안 군수였던 윤길중(당시 나이 26세)이 지방의 유지를 만날 때 제일 먼저 만난 사람도 월촌(月村)이었다.

1939년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아사지경에 이르자 270여 주민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으며, 경로 잔치를 열어 음식을 대접하였다.

1943년에 또다시 흉년이 들어 주민들이 음식을 먹지 못하여 부황(浮黃)이 들자 다시 있는 곡식을 다 풀어 주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일제(日帝) 강점기(強占期)에는 초등 학교도 의무교육이 아니어서 월사금(학비)을 내고 학교에 다녀야 했다. 그러나 가정이 어려워서 월사금을 내지 못해 학교를 졸업 못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선생께서는 장차 독립될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학생들이 배우지 못하고 실력을 쌓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긴다 하며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비를 주워 학교를 졸업하게 하였다.

또한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는 학비를 주면서 학업을 계속하도록 해주어 일찍부터 팔금면 인재 양성에 남다른 열의를 가진 교육 사업의 선구자였다.

■ 八禽面 長村마을 烈婦 金海 金氏

월촌(月村) 최양호(崔良鎬) 선생의 조모(祖母)가 되는 분이시다.

김씨는 풍성이 어질고 덕성스러웠으며, 윗 분을 잘 모시고, 아랫사람

에게는 지극히 자상한 분이였다.

남편이 23세 때 병이 나자 정성스러운 간호를 하였으나 효험(效驗)이 없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입에 넣어 소생케 하였으며, 허벅지 살을 베어 약으로 쓸 정도로 그 이상 더할 수 없는 정성으로 치료를 하였다.

어느 날 남편이 때아닌 꿩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자 구할 방법이 없는 김씨는 신령님께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난데없는 꿩 한 마리가 날아 와서 잡히었다고 한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던가. 다 죽어 가던 사람이 3일을 더 살았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 남편은 죽고 말았으니 그 비통함이 어찌 하였으랴. 그 때 김씨의 나이 23세였다.

입관하고 난 그 날 저녁, 이상하게도 촛불이 가지면서 하늘에서 서기(瑞氣)가 관 주위에 비취 모든 사람들이 매우 놀랐는데 이는 김씨의 남편에 대한 지극한 정성이 하늘을 감동한 때문이라고 하면서 하늘이 내려 준 열녀(烈女)라고 칭송이 자자하였다. 그 후 김씨는 자식들을 훌륭히 양육하고 교육시켰으며, 조상들을 정성스러이 받들고 부지런히 일하여 집안을 일으켰다.

그 후 최씨 가문은 크게 번창하였으며, 김씨는 99세까지 장수하였다.

지방민들은 김씨를 무안(務安) 향

교(鄕校)에 추천 하였고, 호남(湖南) 향교(鄕校)와 성균관(成均館)까지 상신 되었던 바 열녀로써의 교지가 내렸다. 후손들은 해방되던 해

(1945년)에 현 위치(원마)에 열녀각을 세우고 후세의 귀감이 되도록 하였다.

향토 문화

전설(傳說)과 설화(說話)

編輯者

■ 入島祖)에 관한 說話

원래 팔금(八禽)의 본토(本土)는 원산을 중심으로 하여 서근, 장목리가 섬 하나였고, 띠섬, 거문도, 매도, 고산, 거사도, 백지도와 읍리를 중심으로 한 닭메산 자락을 본섬으로 하여 살펴보면 전부 여덟 개의 섬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한 자연 속에 여덟 개의 숫자 팔(八)과 새의 금(禽)자를 합하여 '팔금(八禽)'이라 불려졌다고 한 통설이 옳은 것 같다.

그러니까 대충 추정하여 팔금의 여

덟 개 섬을 연결하는 원뚝(방조각제)이 구축된 것이 1910년 이후로 본다면, 그 이전의 팔금 모습은 현재 들녘으로 된 논(畝)들은 모두가 개펄이었으며, 논이 있었다면 산골짜기 아래 조성된 웅달배미가 고작이었으리라. 나머지는 산자락이나 야산을 일군 밭(田)이 생계 수단의 원천이었다.

그러므로 밀물 때면 여덟 개의 섬이 완전히 섬으로 변해 교통이 막히고 썰물 때가 되어 바닷물이 빠져나가면 노두(露頭-징검다리)를 이용해 통행이 가능했을 것으로 본다.